

2023. 2. 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2133-4700
--------	-----	-----------

식생활개선팀장	이해영	2133-4737
---------	-----	-----------

담당자	차승미	2133-4742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서울시 '애들아 과일먹자' 취약계층 아동 식습관 개선...겨울방학 과일공급 확대 지원

- 시·민간·자치구와 협력, 지난해 5월부터 아동 7천명 주2회 과일, 월1회 영양교육 지원
- 참여아동은 영양지식, 과일 섭취율 향상, 학부모 94%, 담당자 98%는 '사업 지속' 희망
- 시, 기존 연말까지 지원에서 겨울방학 기간(2월까지) 과일공급 연장 약자와의 동행 강화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지 않던 아이가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지금은 과일을 즐겨 먹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과일값이 비싼 편이라 즐겨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부모)

“애들아 과일 먹자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과일 섭취량이 늘어나는 반가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주 긍정적입니다. 모든 기관이 다 지원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담당자)

- 서울특별시 '애들아 과일먹자'사업으로 제철과일, 영양교육을 지원받은 아동 7천명을 조사한 결과, 영양표시 인지율(51.5%→70.2%), 과일 섭취율(22.5%→27.6%)이 향상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과일공급을 기존 12월에서→ 2월 겨울방학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한다.

- 서울시 ‘애들아 과일먹자’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월 1회 영양교육, 주 2회 과일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관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주)희망나눔마켓, 25개구와 협력해 추진해왔다.

- 지난해에는 5월부터 240개 지역아동센터(7,000명)에 과일공급과 영양교육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센터에 준비해 놓은 과일을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참여 아동> 전·후 설문조사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채소’를 먹었다는 아동은 7.9%(31.2%→39.1%),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었다는 아동은 5.1%(22.5%→27.6%) 증가했다.
 - 반면 ▲최근 일주일 동안 주1회 이상 ‘라면’을 먹었다는 아동은 3.5%(67.8%→64.3%), ▲주1회 이상 ‘탄 음료’를 먹었다는 아동은 3.1%(71.2%→68.1%) 감소해 식생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참여 아동 66.1%가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했으며, 영양표시 인지율도 51.5%에서 70.2%로 상승해 영양교육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 <학부모와 아동센터 담당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학부모 94%, 아동기관 담당자 98%가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74.1%가 사업참여 후 ‘자녀의 영양지식 향상 등의 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해 사업 성과를 체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기존 12월까지였던 과일공급 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관이 협력한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식습관이 길러져 평생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아동의 영양관리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과일 공급 및 영양교육 사진 각 1부



협약 체결



영양교육



과일 제공